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일체지혜 바로 아는 수행

일체여래지인(一切如來智印)은 태장만다라 12대원중의 편지원(遍知院) 중앙에 위치한다. 7존 구성 중 1존이다. 보련화 대좌위에 삼중의 삼각형으로 형성하고, 중앙에는 우만자(右卍字)가 있고, 삼각형 외각에는 화염광(火焰光)이 있으며, 그 정상에 우만자가 있고, 그 외각으로 둥근 원형이 있는데, 중앙에 원형의 3겹 광염(光焰)이 있고, 다음은 순백색이 있고, 다음으로 화염광(火焰光)이 있으며, 가장자리에 대륜형(大輪形)이 모두를 감싼다.

편지원은 대일여래의 지혜의 덕을 나타낸다고 한다. 편지(遍知)란 지(知)와 일체지(一切智)의 뜻을 말하고, 지혜(智慧)는 실담범어로, 깨달음으로 인도해 부처를 탄생시킨 불모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편지원을 불모원(佛母院)이라고 한다.

수행법은 삼중 삼각형은 삼세제불의 지혜를 표현하므로 지혜를 관상(觀想)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다. 중앙의 삼중 삼각형 위의 광염을 관상하여 모든 삼독의 번뇌를 항복 받아 사마타와 비빠스야나의 지관쌍수를 한다. 중앙의 우만자를 관상해 본유의 보리심을 얻고, 삼각광염위의 만자는 길상을 의미하면서도, 태양을 표현하므로 관상하여 명(明)을 찾아가는 것이다.

원형삼겹의 광염을 관상하여 삼독을 제거해 맑고 청정함을 나타낸다. 순백색은 대자비를 표현함으로, 관상하여 자비심을 나타낸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③ 근이양증장애인 권오웅씨

사랑은 '장애'를 넘어

안동에 사는 근이양증 장애인 권오웅 씨는 삼십년지기 도반이다. 근이양증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점진적인 근력 감소로 근육이 점점 약해져서 보행 능력 상실, 호흡근력 약화, 심장 기능 약화 등이 나타나는 진행성 장애다. 그럼에도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 봄날"이라고 말하는 권오웅 씨는 특별한 사랑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열다섯 살 무렵 근육병 증상이 몸에 나타나는 것을 느낀 뒤, 오웅씨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죽을 생각으로 가출도 했었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고, 이후 몸과 마음이 힘들 때면 틈틈이 글을 써서 〈새농민지〉에 투고했다고 한다. 당시 권오웅 씨는 글을 쓰면서 평생 함께할 자신의 반려자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여동생도 관세음보살을 3000번 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스님의 말씀을 믿고 오빠가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서원하며 공책에 수없이 관세음보살을 사경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다. 〈새농민지〉에 실린 글을 읽은 22살의 한 아가씨가 권오웅 씨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경주에서 안동 두메산골까지 찾아왔다. 바로 지금의 아내 이화숙 씨다. 화숙 씨의 확고한 마음에도 권오웅 씨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그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몇 번이고 돌아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고, 결국 부처님의 가피로 맺은 운명에 감사하며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매순간 행복했지만 아찔한 고비도 있었다. 어느 날 아내가 지인들과 정초기도를 위해 사찰에 가는 길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한달간 의식불명 상태가 됐던 것.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살아만 있어줘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죠.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 했어요."

지극한 기도 덕인지 이화숙 씨는 곧 의식을 찾고 빠르게 회복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화숙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으며, 두 자녀는 결혼해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이 부부의 사랑을 곁에서 보고 있자면 절로 미소가 나온다. 서로 죽고 못사는 사랑이기보다,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랑이기 때문이다. 몸의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져서 혼자 서있기 힘든 권오웅 씨의 눈에는 항상 아내 이화숙 씨에 대한 믿음과 애틋함이 가득하다.

권오웅 씨는 아내와 함께 안동시내 사찰인 해동사를 다니며 신행생활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면을 빌어 해동사를 향한 감사인사도 전했다. 사찰 신도들도 그를 대할 때 장애인이라고 차별하거나 특별대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감사하고, 장애가 심해지면서 주지스님께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 드렸더니 어려운 형편에도 이를 추진해주셨다는 것이다.

감사한만큼 해동사를 향한 애정도 크지만, 최근 들어 장애가 심해지면서 외출이 더 어려워져, 불교언론이나 유튜브로 법회나 불교강연, 공연, SNS 속의 불교자료들을 찾아보고 있다는 근황도 전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불교 콘텐츠들은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예요. 꼭 절에 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법문을 듣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공간에서 불교공부, 법문, 예불, 정근 등 불자로서 신행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니 수행환경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생각도 듭니다."

새로운 형태의 불교신행에 눈을 뜬 만큼, 종단 혹은 사찰 주도로 새롭게 개발된 불교콘텐츠들이 있으면 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자랑을 많이 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나 역시도 지난해 봄, 해인사의 첫 온라인법회를 접하면서 코로나19와는 별개로 장애인 포교의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적이 있다. 오프라인에서 사찰의 편의시설 등 접근성을 높이고 인식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유튜브, SNS,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 포교의 방법도 심도있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보리수아래도 요즘 언택트 화상 모임을 준비 중이다.

오웅 씨의 아버지가 그를 소중한 아들로 사랑했고, 아내 화숙 씨는 남편의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했으며, 또 자식들은 그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러한 여건은 오웅 씨가 제16회 샘터 '올해의 인간승리상' 본상, 제10회 당산문학상 등을 수상한 작가이자 국제근육병장애인협회장,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원, 금춘가족지 발행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토대가 돼줬다.

이와 같이 어떤 장애를 가졌더라도 한 사람의 불자로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교계에 한층 더 다각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가만히 발원해 본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2018년 아시아장애인공동시집 북콘서트에서 권오웅 씨(중앙)와 부인 이화숙 씨(오른쪽)가 함께한 모습.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